

KBS 제49기 전속성우 남자 1차 시험문제

애들아! 애들아, 이리 와봐. (아이들 다가오자) 너희들 영웅이 뭔지 알지? 히어로! 음... 영웅은 세상을 구하는 사람이야. 근데 세상에는 영웅을 해치려는 나쁜 사람들이 정말 많아. 그래서! 영웅은 절대 정체를 들키면 안 되거든? (아이들 집중) 사실 아저씨는.... 영웅이야.(피!) 어? 못 믿는 거야? 그럼 증거를 보여주지. (소매를 걷고) 자, 이거 보이지? 이게 아저씨가 악당하고 싸우다가 난 상처야. 너희들! 아저씨가 전 세계 악당들하고 어떻게 싸웠는지 궁금하지 않아? 얘기해 줄까? (네!) 대신 약속을 해 줘야 해. 이 건 너희들한테만 알려주는 비밀 이야기거든. 에띠 씨끄릿! 이 건 영웅들의 말로 비밀이라는 뜻이야. 너희들, 비밀 지켜야 한다. 약속! (약속!) 영웅은 사실 피곤해. 매일 비행기를 타고 세계 여러 나라를 다녀야 하고, 절대 정체를 들키면 안 되니까 항상 변장을 해야 돼. 비밀을 지키는 건 참 피곤한 일이란다.

(10초 간격을 두고 연기해 주세요)

불안감이 엄습해 온 것은 바로 지난 여름이었다. 이전까지 나는 나 자신의 의지로는 아무것도 쓴 적이 없다, 문득, 내가 글을 쓸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떠올랐다. 나는 무엇이든 해야 했고, 그 불안은 너무나 거대했다. 내가 글을 쓰기 시작해야 할지 모른다는 생각은 아주 갑작스레 떠올랐다, 그것은 그 불안감이 엄습해 온 이후였다, 나는 무언가를 해야만 했고, 그 불안을 떨쳐 내야만 했다. 하루 중 가장 좋은 때였지만, 이제 해질 무렵은 아주 불안하다, 아주 끔찍하게 불안하다. 모르겠다. 이 불안감을 견딜 수 없는 까닭에, 나는 이 소설을 쓰고 있다. 나는 여기 앉아 있다. 나는 혼자다. 나는 여기 존재한다. 그것이 이 불안감이다. 나는 내 집, 다락방에 앉아, 글을 쓰고 있다. 지금 기분은 그리 나쁘지 않다, 막 쓰기 시작했을 따름이지만, 소설을 쓰기 시작한 것은 좋은 생각이었다고, 나는 생각한다. 이 불안감은 견딜 수가 없고, 그것이 내가 글을 쓰는 이유다.